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월 26일) 2024년 3월 6일 수요일



백초월 스님 애국정신, 이젠 우리가

자주독립을 염원하고 순국한 호국영령들과 백초월 스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담은 (사)백초월스님선양회가 발족됐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사찰로 평가받는 진관사의 주도로 발족된 선양회는 앞으로 백초월 스님 독립운동의 역사고증 및 학술연구활동, 생명존중과 평등사상, 호국불교의 이념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글= 임은호 기자 · 사진=진관사 제공

조계종, '총무원 단일화' 조직 개편 착수

종헌개정안 입법예고…주요 소임자 논의 이어가

교육원·포교원 종헌서 삭제 골자로
진우 스님 "미래지향적 쇄신 필요"
중앙종회·교구본사도 대부분 공감
포교원장 선업 스님 불편한 기색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교육원·포교원 3원 체제로 확립한 조계종이 30년 만에 총무원 단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30년 전 조직체계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종헌개정안 입법예고와 주요 소임자 회의를 거치며 조직개편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관련 주요 소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중앙종회 미래특별위원장, 종교편향대응특별위원장, 포교분과위원장, 관음사·은해사 주지, 원로회의·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무기관 각 부실장 등 종단 운영을 위한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우리 종단이 더 혁신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님은 이어 "이를 위해 지난 30년간 행해왔던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개편 작업이 추진 중"이라며 "여러분이 각 조직 책임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조직개편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하고 잡음 없이 합심해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교육원과 포교원을 종헌에서 삭제하는 '종헌 일부개정안'을 2월 21일 입법예고했다. 3원 통합은 교육원과 포교원이 종헌기구가 아닌 종법기구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을 2025년 4월 1일로 미뤄 종법 내에서 교육원과 포교원이 기존 역할을 이어가고, 그 기간에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 취지에 공감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은 굉장한 위기에 있다. 출가자 급감으로 본사에 행자가 부족한데 절들은 비어가고 재가 불자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동안 개혁종단 성과가 꽤 있었고 그 덕에 현대적 종단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허운 스님 역시 "조직개편은 다소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논의해온 문제"라며 "이제는 논의가 무르익어서 (조직개편)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개편 대상 조직의 수장인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선업 스님은 "종단의 중차대한 일에 관심 기울여주신 부분은 동의한다. 하지만 교육원과 포교원의 역할, 특히 포교에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3원을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했을 때 종단의 교육·포교 역할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 묻는 근본적인 우려로 풀이된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총무원은 현재 교육원과 포교원 별원화로 성취한 시대적 역할과 기능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이 정체되고 발전 방향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별원화 취지와 달리 시대상과 종도들의 요구에 역할이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별원체계에서 인사, 재정, 입법제청 등의 역할이 현재 총무원 중심으로 돼 별원의 위상과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헌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19일 개원하는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종헌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승장 김윤후, 서산·사명대사 의승 추모행사 국가서 지원

문화재청 순의제향 등 20건 지원
대흥사 '구국 삼화상 추모 향례'
김윤후 조명 용인 처인성 문화제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위령재도

호국선열들의 충의를 기리기 위한 제향·문화 행사들이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중에는 고려 승장(僧將) 김윤후, 조선시대 서산·사명·처영 스님 등을 기리는 불교계 추모행사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호국선열의 충의를 기리기 위하여 조성되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유산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를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올해에는 20건의 호국선열 기념행사가 국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중 불교 관련 기념행사는 총 5건이다.

용인문화원과 처인성기념사업회는 제33회 처인성문화제 '처인성에서 다시 만난 김윤후 승장'으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승장 김윤후는 1231년 처인성 전투에서 처인부곡민을 이끌고 참전해 몽골 총사령관인 살리타 장군을 활을 쏴 머리를 꿰뚫어 사살하는 전과를 세웠다. 이후 1252년 충주산성 전투에서 방호별감으로 있었던 김윤후 스님은 70여 일 동안 항전한 끝에 몽골군을 패퇴시켰다. 몽골이 군사적 패배로 고려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사례는 대몽항쟁 기간 동안 처인성과 충주산성 전투 단 두 차례 뿐이었고, 두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 김윤후 스님이다.

조선시대 호국의승을 위한 제향인 밀양 표충사의 '사명대사 춘·추향대제', 해남 대흥사의 '구국 삼화상(서산·사명·처영) 및 호국의승 추모 향례' 등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양산 통도사의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호국 위령재'와 구리 만해 한용운 스님 묘소에 열리는 '만해 한용운 선사 80주기 추모행사'도 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9년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소조좌상의 복장유물에서 '경인년 6월 25일 사변 후 국군 상이병 3000여 명이 입사해 불기 2979년 임진년 4월 12일 퇴거했다'는 기록이 발견되며 통도사가 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됐고, 이에 통도사는 2021년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財)' 체제에서 '국가유산(遺産)'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유산의 무형적 가치 또한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국가유산의 의미와 정신을 보존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이 민 우
2024년 3월 4일 부
이상 1명

참신하고 역량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장을 찾습니다

모집 지역 대구 · 경북 지역
활동영역 • 관할지역 내 광고영업 • 신문홍보 및 구독확장 • 본사 수익 사업 추진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기 한 : 2024년 3월 31일
• 방 법 : 이메일 또는 본사 방문 및 우편 접수
제 출 처
• 주 소 :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운니동, 월드오피스텔) 현대불교신문사
• 이메일 : hyunbul1994@naver.com • 문 의 : (02)2004-8258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